

저고리의 디자인적 특징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제안

박 한 힘*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조교수*

요 약

이 디자인 개발 연구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대중의 의상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신함을 기대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상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통 복식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는 방식의 작업은 디자이너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디자인 방법의 하나다. 그만큼 온전히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디자인은 저고리의 형태, 구조적 특징뿐만 아니라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저고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한복이나 저고리를 모티프로 한 디자인에 시도되지 않았던 가죽이라는 소재의 접목을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디자인 개발 연구는 저고리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깃, 그중에서 직령깃과 여밈을 모티프로 설정해서 베지터블 가공과 왁싱 가공을 거친 양피를 소재로 한 총 4벌의 의상 디자인을 최종 제안했다. 각각의 디자인은 깃의 여밈과 파임의 정도에 차이를 주거나 깃의 형태를 달리해서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으며, 깃의 여밈은 별도의 대를 이용하지 않고 허리 뒷부분에 단추를 달거나 지퍼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등 재킷의 디테일을 접목해서 실용성이 함께 표현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고대까지로 확장해서 저고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디자인 개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주제어 : 직령깃, 저고리, 여밈, 가죽 디자인

*교신저자: 박한힘, kfmarketing401@kmu.ac.kr

접수일: 2021년 5월 7일, 수정논문접수일: 2021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21년 5월 27일

I. 서론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패션에서도 한국의 전통 복식의 현대적인 응용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 개발 노력이 한창이다. 이미 이영희, 이상봉, 진태옥 등 1세대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모티프(motif)로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해오면서 우리 전통 복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을 해오는 중이다. 한국의 전통 복식의 하나인 저고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한복의 종류 중 하나이며, 우리 복식의 시대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는 아이템이다(Lee & Kim, 2009). 이 연구는 우리가 의상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의 바람과 동시에 독창성을 기대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실증적인 디자인 개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고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고리가 등장한 배경과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주로 관련 학술 논문집을 참고했으며, 인터넷 사이트는 보그 코리아(www.vogue.co.kr),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을 위주로 했다. 이미지 자료의 수집은 구글(www.google.com)을 사용했으며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참고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조선 시대부터 2021년 현재까지로 정했다. 저고리에 관련된 자료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료에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저고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시대부터였으며, 의상 제작에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시대 역시 대부분 조선 시대 이후였기 때문에 부득이 조선 시대 이후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고리는 한국의 전통미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 중의 하나로 길옷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저고리의 여밈 방식이나 깃의 형

태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는 양복의 재킷과 유사하며, 구조가 단순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쉽다(Chae, 2017). 따라서 다른 아이템과 비교했을 때 현대적인, 즉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한 패션디자인으로 제안하기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디자인 개발 연구의 모티프로 선택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과 목적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의 조사 등을 통해 저고리의 개념과 종류를 파악한다.

둘째, 조선 시대부터 최근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대별 저고리의 형태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루엣과 디테일 등의 조사를 진행한다.

셋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저고리의 디자인적 특징과 한국적 이미지를 모티프로 한 의상 디자인을 제안한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1) 저고리의 개념

저고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 중에서 상의류를 말하는 것으로 저고리라는 용어가 문헌에 직접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조선 초기 1420년경이며, 저고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명칭은 양서(梁書)와 남사(南史)에 기록된 신라의 위해(尉解)로 알려져 있다(Jung, 2012). 삼국시대에는 유(紬), 복삼(復衫), 위해(尉解)라고도 했으며 현존하는 조선 시대 저고리보다는 길이가 긴 형태로 허리에 띠를 둘러매는 형태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서는 보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삼(衫), 한삼(汗衫), 적고리(赤古里), 의(衣), 저구리, 저고리, 결막이, 동의대 등으로 불렸다(Kim, 2004).

2) 저고리의 종류

저고리는 형태와 구성 등에 따라 민저고리, 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 깨끼저고리, 솜저고리 그리고 누비저고리로 나뉜다. 민저고리 <Figure 1>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저고리로 소매와 깃, 고름 등 저고리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같은 옷감으로 제작되며 고름은 필요에 따라 다른 색이 사용되기도 한다. 회장저고리 <Figure 2>는 저고리의 일종으로서 깃과 끝동 그리고 고름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길과 색이 다른 것을 뜻한다. 또한, 깃, 끝동, 결마기, 고름이 길과 다른 색으로 된 경우에는 삼회장저고리라고 별도로 지칭한다(Yang, 2009). 색동저고리 <Figure 3>은 색동으로 소매를 덧대어서 만든 저고리를 말하는 것으로 까치저고리라고 하기도 한다.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입혔던 저고리이다. 색이 화려해서 경사스러운 날이나 명절에 주로 입혀졌으며 어린아이들이라면 남아나 여아를 불문하고 입혔다. 남아에게는 남색 띠를 별도로 둘러서 남녀를 구별하기도 했다(Fashion specialty materials dictionary,

1997). 깨끼저고리 <Figure 4>는 명칭 그대로 깨끼 바느질로 만든 저고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인들이 여름에 주로 입던 저고리로, 얇고 고운 모시나 견직물인 향라나 노방처럼 속이 비치는 얇고 가벼운 옷감을 이용해서 홉겹의 옷감으로 만들었다. 솜저고리 <Figure 5>는 주로 서민 계층에서 겨울철 방한의 목적으로 입었던 저고리이다. 옷감의 안과 밖 사이에 솜을 누벼서 만든 저고리로 솜은 방한과 옷감의 보강이 주목적이었다. 누비저고리 <Figure 6>은 누빔의 굵기와 솜의 두께 그리고 기법에 따라 오목 누비, 잔 누비, 납작 누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누빔의 굵기와 솜의 두께는 장식의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Cho & Hong, 2011).

2. 저고리의 시대 변화에 따른 특징과 형태 변화

1) 조선 초기(태조 이후 중종 이전)

조선 전기의 저고리 형태는 <Figure 7, 8>과 같

Table 1. 저고리의 종류.

이미지		
 <p>Figure 1. 겹(민)저고리. From Jeo-go-ri(Children's jacket). (n.d.). https://museum.dankook.ac.kr</p>	 <p>Figure 2. 회장저고리. From Hoejang-jeogori. (n.d.). https://museum.dankook.ac.kr</p>	 <p>Figure 3. 색동(까치)저고리. From Kkachi-durumagi. (n.d.). https://museum.seoul.go.kr</p>
 <p>Figure 4. 관깃[冠] 깃(깨끼)저고리. From Jeo-go-ri(Embroidery Jacket with round collar). (n.d.). https://museum.dankook.ac.kr</p>	 <p>Figure 5. 솜저고리. From Som-jeogori. (n.d.). https://www.museum.go.kr</p>	 <p>Figure 6. 누비저고리. From Nubi-jeogori. (n.d.). https://www.jeju.go.kr</p>



Figure 7. 조선(전기) 여성 저고리.
From "Jeogori 400 years ago". (2002).
<https://www.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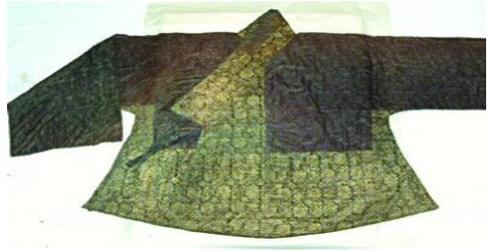


Figure 8. 오산 출토 조선(전기) 여성 저고리.
From "Discovery of a female mummy". (2010).
<http://www.memorialnews.net>

이 허리 부분을 넉넉하게 가릴 정도로 품이 큰 것이 특징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쇠의 구성은 폭이 넓은 목판깃 형태로, 목과 가슴을 깊이 여며서 가늘고 짧은 고름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넓은 소매와 진동 또한 몸을 크게 감싸는 형태를 하고 있다. 조선 초기에는 다양한 길이의 저고리가 공존했는데, 길이가 긴 형태의 저고리는 대부분 양옆에 트임이 있거나 옆선에 결마기가 달려있다(Kim, 2004).

초반에는 당코 깃이 등장했고 이는 18세기까지 계속됐다. 조선 시대 복식에 결정적인 변화의 전환점이 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다. 양란(亂)을 거치면서 저고리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특히 여자 저고리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기 시작했다(Figure 9, 10). 급기야 19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최고 14.5cm 길이까지 짧아져서 가슴조차 제대로 가리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게 된다(Baek & Choi, 2004).

2) 조선 중기(중종 이후 선조 이전)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서 길이가 긴 저고리는 당의로 변화했고, 짧은 형태의 저고리는 화장저고리로 바뀌었다. 중기 이후 저고리는 지속해서 짧아지기 시작했으며 저고리의 깃은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목판깃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17세기

3) 조선 후기(광해군 이후)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 말기로 들어서면서 다시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저고리의 길이 변화는 쇠를 비롯한 다른 구성 요소들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게 됐다(Figure 11, 12). 저고리의 깃은 19세기 말부터는 20세기까지 동그레 깃으로 변천해 왔다. 21세



Figure 9. 조선(중기) 여성 저고리 1.
From Gyungdaeseung. (2012).
<https://m.blog.NAVER.com>



Figure 10. 조선(중기) 여성 저고리 2.
From Ta-ae. (2014).
<https://m.blog.NAVER.com>



Figure 11. 조선(말기) 여성 저고리 1.
From Wonder woman. (2014).
<https://m.blog.NAVER.com>



Figure 12. 조선(말기) 여성 저고리 2.
From Guk-pan. (2009).
<https://blog.daum.net>

기 현시기에는 목관깃, 당코 깃, 동그래 깃, 맞깃 등 다양한 깃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 형태에서도 한복의 아름다운 곡 배려는 조선 후기에 생겨난 것이다. 일체의 식민 지배를 받는 시기부터 조선이 패망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서던 시기의 조선 말기는 여성들에게 한복의 착용보다 양장의 착용이 강제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소수의 고등 교육을 받은 여학생과 신여성 들을 중심으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복은 지속해서 입혀졌다. 다만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고름은 단추나 브로치 등으로 입고 벗기 편하게 바뀌기도 했다 (Son, 1989).

4)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해방 이후에도 저고리의 형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길이는 대략 35cm 전후였으며, 소매통이 좁고 설피 깃 그리고 동정이 넓은 형태를 띠었다.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 및 보급의 영향으로 양장의 착용 비율이 높아졌고 나일론과 같은 화학 섬유류의 등장으로 의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의 발달은 서양 문화에 관한 관심을 촉진했으며, 자연스럽게 서양 복식에 관한 관심도 함께 증가시켰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스타일도 점점 진취적으로 변모해 갔으며 점차 양장 중심으로 복식 문화가 변화해 갔다.

5) 한국전쟁 이후 고도성장기(1960년대 후반)

한국전쟁 이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더 퍼졌으며, 한복은 실용화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Ahn & Kim, 1999). 1960년대 초기까지 저고리의 길이와 품은 넉넉했으나 60년대 중반부터 점차 좁아지기 시작했다. 60년대 후반부터 합성섬유의 개발로 인해 기존의 공단과 양단 명주, 무명 등을 대체하는 인조 공단, 양단 그리고 테플론(teflon) 등이 등장했으며 저고리를 비롯한 한복이 예복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장식적인 요소들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6) 산업화(1970년대 초반) 이후 경제 번영기 (1990년대 후반)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저고리의 형태는 더욱 간소해지면서 길이가 더 짧아지기 시작했다. 옆

길이는 겨드랑이 밑 길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짧아졌으며, 깃과 섶 동정도 가늘고 좁아졌다. 70년대 후반 섬유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되고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됐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양장은 평상복으로 한복을 완전히 대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복은 명절이나 혼례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의례복으로 남게 됐다(Hwang, 1995).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고리의 길이는 더욱더 짧아졌고 배래와 도련이 직선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7) 최근(200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미디어의 발달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통 복식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시대별 복식 연구 자료들을 활용한 고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저고리의 길이는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다. 깃의 넓이는 다시 넓어지기 시작했고 배래와 도련은 완만해지기 시작했다. 동정의 넓이도 대략 2.5cm까지 넓어졌으며 깃의

모양도 동그래나 당코, 직령, 목판깃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제작기법 면에서도 깨끼바느질이나 겹 바느질이 병행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등 양적,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중이다(Lee & Kim, 2009).

III. 실물 의상 제작

1. 디자인 콘셉트

Lee and Chae(2011)는 저고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깃과 선, 허리대, 끈, 고름 그리고 매듭단추가 저고리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주요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이며 한국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깃의 예술성에 주목했으며 형태와 여밈의 방법에 따라 직령교입형, 직령합입형 그리고 곡령교입형 상의 스타일로 분류했다. 본 연구자 역시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저고리의 깃과 고름 그리고 동정 등의 디테일이 저고리의 핵심 디자인 요소임을 확인했으며 특히 저고리 깃의 여밈에 의해 만들어지

Table 2.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저고리의 특징 변화.

시기	특징
1. 조선 초기	저고리 형태는 허리 부분을 넉넉하게 가릴 정도로 품이 큰 것이 특징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유사한 형태
2. 조선 중기	길이가 긴 저고리는 당의로 변화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저고리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저고리의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아짐
3. 조선 후기 이후 일제강점기	여성들에게 한복의 착용보다 양장의 착용이 강제되던 시기였으며, 한복의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보완이 이루어지기 시작
4. 해방-한국전쟁 이전	양장의 착용 비율이 높아졌고 나일론과 같은 화학 섬유의 등장으로 의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 여성들의 스타일도 진취적으로 변모
5. 한국전쟁 이후-고도 성장기	60년대 후반부터 합성섬유의 개발로 인해 기존의 공단과 양단 명주, 무명 등을 대체하는 인조 공단, 양단 그리고 테프론 등이 등장
6. 산업화 이후-경제 변영기	양장이 평상복으로 한복을 완전히 대체하게 됐으며,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이 등장하기 시작.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고리의 길이는 더욱더 짧아졌고 배래와 도련이 직선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
7. 최근	전통 복식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시대별 복식 연구 자료들을 활용한 고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제작기법 면에서도 깨끼바느질이나 겹 바느질이 병행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등 양적,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중



Figure 13. 비단 겹저고리.
From Conderae manderae. (2005).
<http://roks821.egloos.com>



Figure 14. 김덕령 장군의 저고리.
From Encyclopedia of Korea Culture. (n.d.).
<http://encykorea.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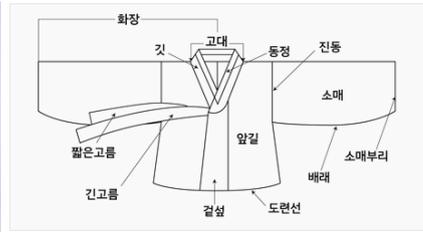


Figure 15. 저고리 세부 명칭.
From Sohyang. (n.d.).
<http://blog.NAVER.com>

는 V자형 비대칭 균형의 세련된 실루엣이 저고리의 전체적인 형태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13-15). 이 디자인 개발 연구는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확인된 저고리의 핵심 디자인 요소들, 그중에서 깃과 여밈을 디테일 모티프로 설정하고 실루엣은 저고리를 모티프로 해서 총 4벌의 디자인을 제안했다.

2. 소재 및 색채

가죽은 직물과 같은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의상을 제작할 때 원하는 형태로 쉽게 변형할 수 있다. 다만 염색이 까다로우므로 선염(先染)이 된 가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가죽을 소재로 한 의상 제작은 색의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디자인 개발 작업에서는 모두 검정으로 선염이 된 양가죽을 사용했으나 전체 의상이 단조로워 보이지 않도록 질감에 변화를 주거나 부자재에 포인트 색을 사용했으며, 표면에 베지터블(vegetable)과 왁싱(waxing)가공을 한 가죽도 혼용해서 사용했다. 베지터블 가공을 거치면 습기나 유분을 흡수할수록 윤기를 더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코팅이나 인위적인 표면 가공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죽의 표피가 원모습 그대로 살아 있는 것처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가죽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의류 제작에 적합하다. 그리고 가죽 특유의 두께감 때문에 자칫 경직되어

보이지 않도록 페이퍼 가공을 거쳐서 원피를 가능한 한 얇게 만든 후 왁싱 처리를 해서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만들었다. 디자인 1과 4는 베지터블 처리를 한 가죽을 사용했고, 디자인 2와 3은 왁싱 처리를 한 가죽을 사용했다.

3. 실루엣 및 디테일

저고리에서 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좌우의 정도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와 형태미가 달라질 수 있어서 깃의 여밈과 좌우의 정도에 차이를 두어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디자인 1은 드레스와 조끼로 이루어진 투피스 디자인 콘셉트로 날카롭게 세운 직령깃이 디자인 포인트이며, 조끼의 디자인은 더블브레스트 재킷(double breast jacket) 원형으로 저고리의 이미지가 함께 표현될 수 있도록 했다. 허리대를 이용하지 않고 속 단추를 이용해서 허리 부분에서 깃을 여며 부드러운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매끄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름이 떨어질 수 있도록 했다(Figure 16). 디자인 2는 서양의 가운과 유사한 실루엣을 가진 저고리 디자인이다. 길게 뻗어내린 직령깃과 내려갈수록 펼쳐지는 깃의 디테일이 특징이다. 여밈의 위치가 높아서 소재와 더불어 무게감이 크게 느껴진다. 길이가 긴 저고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형태상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밑단 고저의 차를 크게 했다(Figure 17). 디자인 3은 중앙에서 끈을 이용해

여미는 형태의 저고리 디자인이다. 기본적인 한복에서 모티프를 가져왔으며 깃의 여미가 깊게 파여

서 여성스러움이 강조될 수 있도록 의도했으며, 깃의 합임을 끈과 더불어 지퍼를 이용해서 여미의

Table 3. 실루엣과 디테일.

	이미지	특징
# 1	 <p data-bbox="449 697 672 765">Figure 16. 디자인 1.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0, 2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블브레스트 재킷 원형 - 속단추를 이용한 깃의 여미 - 짧고 곧게 세운 깃
# 2	 <p data-bbox="449 1045 672 1112">Figure 17. 디자인 2.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0, 2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령 저고리를 모티프로 하는 실루엣 - 골반까지 이어지는 길게 뻗은 깃 - 고저의 차가 심한 단 처리
#3	 <p data-bbox="449 1392 672 1460">Figure 18. 디자인 3.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0, 2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한복 실루엣 - 끈과 지퍼를 이용한 현대적인 디테일의 실용적인 아름다움 강조 - 매듭의 형태 변화를 통한 다양성 표현
#4	 <p data-bbox="449 1663 672 1731">Figure 19. 디자인 4.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0, 2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기장과 깃 - 팔을 드러내는 실루엣과 가슴 부분의 여미의 교차로 인해 드러나는 신체의 곡선미 강조 - 가벼운 부피감의 강조



Figure 20. 베지터블 양가죽.
 Edited by the author from "WASHED WRINKLED BLACK". (n.d.).
<https://www.italianskins.net>

Table 4. 최종 디자인 제안.

이미지			
			
<p>Figure 21. 디자인 1.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0, 2021).</p>	<p>Figure 22. 디자인 2.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0, 2021).</p>	<p>Figure 23. 디자인 3.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0, 2021).</p>	<p>Figure 24. 디자인 4.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10, 2021).</p>

로써 실용성도 강조했다(Figure 18). 디자인 4는 짧은 기장의 실루엣과 직령의 짧은 것이 디자인의 특징이며, 것의 여밈은 별도의 대를 이용하지 않고 허리 뒷부분에 단추를 달아 고정했다. 팔을 드러내서 저고리의 디자인 포인트가 허리와 가슴 부분의 짧은 것에 집중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죽 소재를 사용했지만 자연스러운 부피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페이퍼(paper) 가공이 된 양가죽을 사용해서 가슴 부분에서 교차하는 것이 신체의 곡선미를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도록 했다(Figure 19). 완성된 최종 디자인은 <Table 4>와 같다.

IV. 결론

이 디자인 개발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의상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의 바람과 동시에 독창성을 기대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통 복식을 재해석하는 방식의 작업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그만큼 새롭게 보이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디자인은 저고리의 형태, 구조적 특징뿐만 아니라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저고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가죽이라는 한 번도 시도 해 보지 않았던 소재의 접목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저고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특히 깃과 고름 그리고 동정 등의 디테일이 저고리의 핵심 디자인 요소이며 저고리 깃의 여밈에 의해 만들어지는 V 자형 비대칭 균형의 세련된 실루엣이 저고리의 전체적인 형태미를 결정한다. 이 디자인 개발 연구는 저고리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깃, 그중에서 직령깃과 여밈을 디테일 모티프로 설정해서 베지터블 가공과 확성 가공을 거친 양피를 소재로 한 총 4벌의 의상 디자인을 개발했다. 각각의 디자인은 깃의 여밈과 파임의 정도에 차이를 주거나 깃의 형태를 달리해서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으며, 깃의 여밈은 별도의 대를 이용하지 않고 허리 뒷부분에 단추를 달거나 지퍼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등, 재깃의 디테일을 접목해서 실용성이 함께 표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디자인 개발 연구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디자이너나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넓혀서 고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의 저고리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디자인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닌 학술 가치 역시 높은 개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한다.

References

- Ahn, M. S., & Kim, Y. S. (1999). *한국복식사* [History of Korean costumes]. Seoul: 예학사.
- Back, Y. J., & Choi, H. Y. (2004). (흥미로운) 우리 옷 만들기 [(Interesting) Making our own clothes]. Seoul: Kyohakyongusa.
- Chae, G. S. (2017). *한국 복식문화: 고대* [Korean costume culture: Ancient era]. Seoul: 경춘사.
- Cho, Y. S., & Hong, S. O. (2011). *한복구성* [Structure of Hanbok]. Seoul: 경춘사.
- Encyclopedia of Korea Culture. (n.d.). *Encyclopedia of Korea Culture*. Retrieved May 10, 2021,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9084#modal>
- Fashion specialty materials dictionary. (1997). Seoul: KDR. [A fashion dictionary]. Seoul: KDR.
- Hoejang-jeogori.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May 15, 2021, from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7333&_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_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3&_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_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A0%80%EA%B3%A0%EB%A6%AC
- Hwang, Y. S. (1995). *A study of the style variation for Korean women's traditional costu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Jeo-go-ri(Children's jacket).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May 10, 2021, from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5708&_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_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_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_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A0%80%EA%B3%A0%EB%A6%AC
- Jeo-go-ri(Embroidery Jacket with roud collar).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May 4, 2021, from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7619&_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_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75&_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
- Jung, G. J. (2012). *A study on the changes of women's Jeogori form and making women's Jeogori: From 1910 to 2010*.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H. S. (2004).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 [Our beautiful Jeogori]. Seoul: Moonhwa Media.
- Lee, H. J., & Chae, G. S. (2011). A study on Korean jacket styl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2), 165-178.
- Lee, T. O., & Kim, G. J. (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shape in women's Jeogori Since the 19th centur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2(1), 127-142.
- Son, M. I. (1989).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 연구: 1920년부터 1945년까지* [The study of costumes shown in the Dong-A: From 1920 to 1945].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WASHED WRINKLED BLACK vegetable tan Italian genuine Lambskin Lamb Sheep leather skins hides 0.5mm to 1.2mm. (n.d.). *italianskins store*. Retrieved May 5, 2021, from

- <https://www.italianskins.net/listing/605580923/washed-wrinkled-black-vegetable-tan>
- Yang, S. H. (2009) *전통의상 디자인* [Traditional costume design]. Seoul: Kyohakyongusa.
- 경대승장군 [Gyungdaeseung]. (2012, June 13). 조선 시대 여성들이 가슴을 내보인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Why did women in the Joseon Dynasty show their breasts?]. *N AVER*. Retrieved May 1, 2021, from <https://m.blog.NAVER.com/octagonman/20159927297>
- 국판 [Guk-pan]. (2009, April 27). 조선 시대 1900년 [The Joseon Dynasty 1900]. *Daum*. Retrieved May 10, 2021, from <https://blog.daum.net/todk3133/60>
- 곤드레 만드레 [Gonderae manderae]. (2005, January 30). *대한민국과 세계의 문화재*. Retrieved May 10, 2021, from <http://roks821.egloos.com/8001310>
- 까치두루마기 [Kkachi-durumagi]. (n.d.). *Seoul Museum of History*. Retrieved May 10, 2021, from <https://museum.seoul.go.kr/www/relic/RelicView.do?mcseqn1=000482&mcseqn2=00000&cdLanguage=KOR>
- 누비저고리 [Nubi-jeogori]. (n.d.). *제주특별자치도*. Retrieved April 10, 2021, from https://www.jeju.go.kr/culture/digitalContents/directory.htm?jsessionid=ryINchKsZbiTef18Ga1MFFbx6cbaTJxYOcIbfuExuEbWCD11QL18e1aYgdaAAmGw.was2_servlet_engine1?pageSize=40&_layout=playout&_view=print&page=56&act=view&seq=3634
- [사회포토] 400년전 저고리 [[Social Photo] Jeogori 400 years ago]. (2002, November 15). *dongA.com*. Retrieved May 10, 2021, fr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1115/7883058/1>
- 소향이 [Sohyangi]. (2017, March 31). 소향디자인한복: 남녀 한복 명칭 알기 [Sohyang Design Hanbok: Know the names of men's and women's hanboks]. *NAVER*. Retrieved May 4, 2021,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7hs.&logNo=220971399668&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 숨저고리 [Som-jeogori]. (n.d.). *National Museum of Korea*. Retrieved April 21, 2021, from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25473>
- 원더우먼 [Wonder woman]. (2014, December 25). 옛날에는 한복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아요 [How did they wear Hanbok in the past? Let's meet together]. *NAVER*. Retrieved May 5, 2021,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tww7288&logNo=22021941357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 조선전기 여성 미라 오산서 또 발굴 [Discovery of a female mummy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in Osan]. (2010, June 7). *Memorial News Korea*. Retrieved May 10, 2021, from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3135>
- 참좋은무당 타애 [Ta-ae]. (2014, July 20). 조선 시대 여인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닌 이유 [The reason why women in the Joseon Dynasty walked around with their breasts exposed]. *NAVER*. Retrieved May 10, 2021,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ueensilla&logNo=22006613219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A Fashion Design Proposal Using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Jeogori

Park, Han H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Marketing,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design development research is mainly two. The first is to induce a more positive change in the way costume works are viewed and understood by the public. The second is to propose a costume design that can satisfy novel creativity needs for modern people who expect brand new. The work of reinterpreting traditional costumes and creating new designs is one of the design methods enjoyed by designers. So it is also a topic that requires a lot of careful and attention to look completely new. Therefore, the design proposed by this study pursued a new type of Jeogori design through analysis of not only Jeogori shape and structural features, but also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value. The design development research finally proposed a total of four designs based on sheepskin that had undergone vegetable and waxing processing by setting the collar and Ye'mim, the core design elements of the Jeogori, as motifs. I made a change to each design by varying the degree and the shape of the collar, and the collar's closure was applied with the details of the western jacket style, such as attaching buttons to the back of the waist or fixing it with a zipper without using a separate pole.

Key words : Jikryeong-git(Collar), Jeogori, ye'mim, leather design